

거대한 전환/칼 폴라니

문우진 (아주대 사회과학대 · 정치학)

칼 폴라니의 생애

칼 폴라니는 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 비엔나에서 중산층 유대인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4개국에서 평생을 보냈다. 칼 폴라니는 57세에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이론을『거대한 전환』이라는 한 권의 책에 집대성하였다.

폴라니는 철도산업으로 부자가 된 아버지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강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 및 라틴어까지 구사할 줄 알았다. 폴라니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에 다닐 때, 급진적이고 영향력 있는 클럽 갈릴레이를 만들었으며, 이 클럽은 헝가리의 지적 토대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폴라니는 게오르크 루카치, 오스카 자스지, 칼 만하임과 같은 저명한 사상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폴라니는 1908년에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12년에 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시절부터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방향의 사상을 정립하였다.

1912년에 법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14년에는 헝가리 급진당의 창당을 도왔으며, 당 비서를 맡았다. 삼촌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돕던 폴라니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28세의 나이에 군에 입대했다. 전쟁의 참상은 젊은 그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종전 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분리된 후, 부다페스트로 돌아 온 그는, 한 번 더 정치 활동가가 되었다. 폴라니는 헝가리 극우세력이 정권을 잡자 오스트리아로 망명했고 1924년에서 1938년까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경제 금융 주간지 <오스트리아 대중경제>에서 국제 담당 선임 편집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에 경제 발전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유리된 추상적인 모델을 구성하는 것으로 비치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폴라니 자신은 페이비언주의과 조지 더글라스 콜의 작품에 흥미를 느꼈다. 폴라니가 기독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파시즘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한 1933년에 오스트리아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하여 영국 자본주의의 참담한 현실과 방대한 영국 사회경제사 자료에 자극을 받아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중에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으로 나온 그의 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했다. 그는 베닝턴 대학에 자리를 얻어 버몬트로 이사했을 때인 1940년까지는 이 연구 내용을 책으로 저술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1944년 큰 환호 속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폴라니는 영국에서의 인클로저 과정과 19세기 초의 당대의 경제 체제의 생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플라니는 미국으로 건너가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자리를 얻었으나, 아내의 공산주의 경력 때문에 미국 입국비자를 못 얻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서 정착하면서 뉴욕까지 통근하였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의 화폐와 교역에 관심을 두었으며 경제학을 뛰어넘은 인류학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1960년대에는 버트란드 러셀,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당대의 지성들과 함께 <공존>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화폐, 교역에 관한 연구인 『초기 제국들의 교역과 시장』(1957)과 유작인 『다호메이 왕국과 노예교역』(1977)등이 있다.